

# “지역상인 생존권 박탈” vs “관광객 유입 상권 활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지자체-상인 '상생방안' 절실

**지역상인** “코로나에 경기침체 시설철거까지 겹쳐 손님 끊겨”

**지자체** “하천복원 장기적 추진 유원지 관광객 유치 목표”



지난 4일 경기도 양주시 일영유원지 하천 옆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모습. /박태홍 수습기자

경기도의 계곡이 불법시설물 철거로 시민 품에 돌아왔지만 현장에서 지자체와 지역 상인이 상생 방안을 찾지 못해 충돌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상인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편의시설까지 없애야 손님들을 계곡으로 유인할 방법이 사라졌다고 울상을 지었다. 반면 지자체는 장기적인 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경기도 양주시 일영유원지와 장흥유원지에선 불법시설물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지난해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 내 불법시설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자 상인들이 이를 모두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양주시 삼삼리 일영유원지에서 산장을 운영하는 A씨는 “벌금 3000만원을 내라고 하니가 철거하지 않고 버틸 수

가 없다”면서 “대학들이 가까이 있어 M.T, 단체 워크숍으로 3월부터 예약이 팍차자 정상인데 지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사람들이 오지 않아 방이 텅 텅 비었다”고 털어놨다.

철거된 평상 자리를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던 그는 “우리 가게 위쪽으로 다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어 불거리나 놀 거리가 다양하지 않다”며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혁성 삼삼리 이장은 “예전에는 벌금을 맞고 장사해도 수입이 더 많아서 상인들이 벌금을 내고 장사를 계속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은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은 철거에 반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철거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양주시 석현리 장흥유원지도 하천을 점유하고 있던 불법시설물을 없애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였다. 이날 유원지에 온 시민들은 불법시설물이 있던 자리에 캠핑 의자를 펼치고 앉아 산림욕을 즐겼다.

장흥유원지에서 음식점을 꾸려온 B씨는 “솔직히 우리 같은 입장에서 이번 조치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가게 앞 하천들은 상인들이 관리를 잘해 나 깨끗한데 다른 데는 풀 나고 더럽고 관리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은 약자인 우리가 벌금을 물어가면서 장사했는데 철거되고 코로나까지 찾아와서 가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유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려면 불법시설물 철거 외에 지자체에서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호주의 블루마운틴은 순환버스가 있어 승용차 없이도 관광하기 참 좋다. 그런데 여긴 유원지임에도 버스배차간격이 1시간”이라며 답답해했다.

지자체는 하천 복원 사업을 벌여 유원지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이명우 양주시청 안전건설과 주무관은 “올해는 석현리를 중심으로 하천 정비, 미비 산책로·화장실 설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며 “불법시설물 철거 성과나 주민 협조, 사업 효과 등을 토대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은 현재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시설물 1463곳 중 1383곳이 철거된 상태라고 밝혔다. 도는 하천을 정비하고 화장실·쉼터주차장·공동판매장 등 편의시설 설치, 마을공동체 구성과 사업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태홍 수습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D·N·A 우수사례에 메디컬아이피 등 3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 과기부, 사회문제 해결 기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의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우수사례로 메디컬아이피, 수퍼빈, 테스트웍스 등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5월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우수사례’ 선정은 ‘2019년 DNA 혁신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후속 조치로 4월에 이은 두 번째 선정이다.

‘5월의 DNA 우수사례’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 사회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 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착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기업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메디컬아이피는 의료 영상 데이터를 AI 학습을 통해 코로나19 폐렴병변을 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홈페이지에 무료 공개했다.

이 제품이 46개국에서 활용하는 등 국내 의료 정보통신기술(ICT)의 위상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퍼빈은 자체 개발한 물체인식 AI

기술을 통해 빈 페트병, 캔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선별·수거하고 보상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됐다.

테스트웍스는 AI 고도화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자폐성 장애인, 김수 매니저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했다. 5월 기준 전체 직원 84명 중 장애인 17명(20%), 경력단절여성 15명(18%), 청년 33명(39%)이 근무하고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7일 오후 충남 천안시 있는 과수농가를 현장방문해 배 저온 피해 발생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 농식품부, 농림작물 피해금 1054억 지원

지난 4월 중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한 농림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복구 지원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5~9일, 14일, 22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작물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 피해면적은 농작물 4만 3554ha, 산림작물 5058ha 등 총 4만 8612ha로 집계됐고, 이에 대해 총 1054

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저온 피해를 입은 곳은 7만 4205개 농가로 피해작물 대상 농작대, 대과대(타작물 파종비용),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생계비를 지원한다. 농약 살포를 위해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199만원, 보리 등 맥류는 59만원을 지급하고, 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119만원이 지원된다.

/한용수 기자 hys@

## 국산마늘 美·대만 등 수출길 열렸다

농식품부·aT, 물류비 14% 지원

올해 작황 호조로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있는 마늘이 국내시장의 수급안정 차원에서 미국과 대만 등으로 본격 수출길에 나선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에 따르면, 국산마늘은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매우 낮아 수출이 힘든 품목이었으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값싼 중국산 마늘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산 마늘수출이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

지난해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으로도 마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5월말 기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국산 간마늘 수출은 전년 8000 달러 대비 440만 달러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피마늘이 주로 수출되는 대만으로도 5월말 기준 전년 1600 달러 대비 55만 달러로 늘었다.

농식품부와 aT는 이번 마늘 수출확



대를 위해 수출국에서의 과당경쟁 방지와 수출장구 단일화를 위해 마늘수출협의회도 구성하여 올해 말까지 모든 회원사들에게 기존 물류비의 2배인 14%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 최저가격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수출협의회 회원사에 한해서는 기존의 수출물류비 지원조건인 최근 1년 내 해당부류 수출실적이 FOB기준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늘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협의회 회원사는 수시모집한다.

/한용수 기자

## 고용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 감독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6월8일~7월17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지반 등의 붕괴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기습 폭우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화재위험 작업시 소화기구 비치와 감시자 배치,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독에 앞서 19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해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한용수 기자

## 농촌 일자리정보·정주여건 간편 확인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 개편

앞으로 전국 농촌 일자리 정보를 한번에 확인 가능하고, 일자리 정보와 함께 농촌 정주여건 정보도 바로 확인해볼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부터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을 전면 개편·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개편된 누리집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

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영농 근로 체험, 귀농 등 일자리 정보와 함께 지역여건, 관련 교육 신청까지 통합해 제공한다.

농업 일자리 정보탐색 기능, 다양한 교육 신청기능, 수요자 맞춤형 귀농정보 제공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또 8일부터 도시농업 귀농교육 등 농업분야 일자리 탐색교육과정(2시간~4일)과 일자리 체험연계 귀농교육 과정(2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용수 기자